



암 환자 사망 직전, 몸에서 유독가스 발생

암환자의 몸에서 사망직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독가스가 나와 응급치료 중이던 의사와 간호사 등 6명이 질식되거나 근육경련을 일으키는 괴상한 사건이 벌어져 검시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버 사이드 가운티 종합병원 시체검시소는 비닐로 두겹이나 쓴 채 알루미늄관에 보관돼 있는 문제의 사체를 꺼내 검시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주변의 2개 도로를 차단하고 긴급구호반까지 동원했다.

자궁경부암 말기인 글로리아 라미레스(31)라는 여인은 리버 사이드 가운티 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몸에서 암모니아와 비슷한 유독가스가 나와 치료를 하던 의사와 간호사 5명이 질식하고 호흡장애와 근육경련을 일으켜 입원했으며 이중 4명은 퇴원했으나 2명은 계속 입원치료 중이다.

라미레스는 응급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병원측은 당초 가스가 살충제와 신경가스에 사용되는 극도의 민감한 화학물질인 유기인산염에 의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으나 사고

직전 채취된 그녀의 혈액에서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4명의 검시요원들은 검시실 공기를 차단해 주는 안전복을 입은 채 검시에 임했으며 검시실 옆방에는 산소마스크까지 착용한 안전요원들이 대기했다.

“겨울철 사망, 凝血현상과 관련 많다”

노인들은 겨울에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많이 사망하는데 이는 감염으로 핏속의 성분이 응혈되기 쉬운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이-티 카우 박사가 이끄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진은 지난 91년 1월부터 92년 2월까지 65세에서 74세까지의 노인 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흡기의 감염이 체내 면역물질의 생산을 촉진하고 이 면역물질이 응혈을 촉진하는 물질인 섬유소원과 인자 VII의 생산을 증가시켜 치명적인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의학전문지 랜싯호에서 발표했다.

혈장 속에 들어 있는 수용성 단백질

질인 섬유소원(파이브리노젠)은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면 현저하게 증가해 적혈구 침강반응 속도를 증강시키는데 이 섬유소원과 인자 VII의 증가가 응혈을 촉진,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론은, 만일 겨울철 감염을 줄이면 치명적인 심장병의 추가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카우박사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노인 96명의 건강을 두달마다 점검하면서 섬유소원과 인자VII, 그리고 다른 면역물질을 측정하고 노인들에게 감기나 유사한 증상을 앓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방법으로 실험했다.

이 연구결과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

보다 섬유소원은 5% 많았고, 인자VII은 겨울철에 여름철보다 6% 정도 많았다. 이들 물질의 증가폭은 일상적인 증가폭을 능가해 심장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카우박사는 주장했다.

지금까지 응혈이 심장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었으나 이 연구로 호흡기 질환이 응혈과 관련이 있는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연구가 한발 더 발전한 것이다.

영국심장협회 전 회장 더글러스 채임벌린 박사는 “그럴 듯한 연구이나 모든 심장병이 겨울철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감기 자체도 응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 연구를 평가했다.

건첩, 검진자 불편 상담전화

080-024-8572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전화로 들려 주십시오.

◎ 이용전화 : 080-024-8572(수신자부담)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7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자 불편 상담소 앞
(157-016)